

고령자 그룹홈 거주자의 공간이용패턴 분석

Analysis of the Habit of Space Occupancy of Residents in Group Homes for the Elderly

김현진* 안옥희**
Kim, Hyun-Jin An, Ok-Hee

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23 elderly residents living independently in 4 group homes for their behaviors of space occupancy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The aim of the study was to analysis the habit of space occupancy of residents in group homes for elderly people. As the results, the habit of space occupancy of residents in group homes was analysed and categorized into four types: (1) bedroom occupancy, (2) common space occupancy, (3) 2-space occupancy and (4) several spaces occupancy. It was shown, then, that the common space occupancy in 'ㄴ' group home, 2-space occupancy and several spaces occupancy in 'ㅇ' and 'ㄱ' group homes, and bedroom occupancy in 'ㄷ' group home were highest, respectively, so that the type of their space occupancy varied in accordance with individual group homes. Moreov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habit of their space occupancy according to the degree of achieving both ADL and IADL. This fact seems to indicate that the higher the degree of their independence in ADL and IADL, the more the number of their occupying space. Accordingly, the degree of their independence in achieving ADL and IADL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planning residential spaces for elderly people, including individual and commonly sharing spaces, traffic lines, layout and facilities.

키워드 : 고령자 그룹홈, 공간이용패턴

Keywords : Group home of the elderly, Habit of space occupancy

1. 서론

우리나라는 그동안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1960년에 52.4세였는데 2000년에 74.9세가 되어 40년 동안 23년이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8년 보건사회연구원 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와 70세 이상 고령자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각각 85.2%와 87.6%로서 고령자의 3/4 이상이 하나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1998). 그리고 고령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60대에 비해 70대에 유병률이 높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같은 연령군의 남자고령자에 비하여 여자고령자에게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박경숙, 2003).

즉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성 질환의 증가, 여가시간의 증대, 역할 상실, 수입 절감, 건강 악화 등으로 수동적이고 부적응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고승덕, 1996), 이러한 노화로 인한 문제들은 고령자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며, 정신적인 이상으로 인한 일상생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이인학 외, 2002). 따라서 고령자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존에 필요한 기능과 활동력이 약해져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최근 서구에서는 그동안 주류적 고령자 생활환경이 되어 왔던 시설보호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탈 시설화 운동과 지역사회보호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화된 고령자 홈이나 고령자 간호 홈 대신에 독립생활을 돕는 다양한 중간적 지원체계(intermediate supportive system)를 채택하는 추세이다(성명옥, 1999). 이러한 체계는 고령자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행되는 기능적인 무력과 허약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독립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계획된 것으로 고령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대안적인 수단으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머물며 독립성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 고령자 주거유형으로 친밀감이 있는 가정적 분위기를 가진 소규모 생활 단위의 그룹홈은 종래의 시설 중심에서 탈피하여 이제까지 살아오던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를 위한 주택과 지역 내의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시설을 수용의 장이 아닌 생활의 장으로 파악하기 시작한 시점의 전환에 기초하여 나타난 고령자 시설의

*정회원,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겸임교수, 생활과학박사

**정회원,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교수, 학술박사

물리적 환경 및 생활 전반에 있어서 주거에 가깝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다(田中紀之 外,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 그룹홈 거주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시간대별 공간이용행태와 생활행위를 분석함으로써 그룹홈 고령자의 공간이용패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조사대상은 고령자를 위한 소규모 그룹홈 4곳에서 생활하는 23명의 고령자이다. 조사대상자의 개요는 표 1과 같다.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이하 ADL)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이하 IADL)의 수행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설별 거주자들의 공간이용행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진촬영과 관찰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는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과 공간의 배치 및 구성 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7월에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5년 8월 4일~22일에 걸쳐 본 연구자와 사전에 조사방법에 대한 훈련을 한 조사원 2명이 방문 조사하였다.

ADL 척도와 IADL 척도로 사용한 조사도구는 우리의 일상생활습관과 문화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는 K-ADL

과 K-IADL(이영수 외, 2002)을 선택하였다. K-ADL은 옷 입기, 세수, 목욕, 식사, 이동, 화장실 사용, 대소변 조절의 7개 항목, K-IADL은 몸단장, 집안 일, 식사 준비, 빨래, 근거리 외출, 교통수단 이용, 물건사기, 금전관리, 전화사용, 약 챙겨먹기의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거주자의 생활패턴과 생활영역을 도출하기 위하여 고령자의 속성별, 1일 생활주기별, 장소별 행위와 동선 흐름에 따른 생활패턴으로 나누어 기록용지에 공간이용과 행동의 변화를 기록하였다.

III. 결과 및 분석

1. 그룹홈 거주자의 공간이용패턴

그룹홈 거주 고령자들의 거주공간에서의 생활행위 및 공간이용 특성을 분석하여 침실체재형(寢室滯在型), 공용공간체재형(共用空間滯在型), 2거점체재형(二居點滯在型), 다거점체재형(多居點滯在型)의 4개의 공간이용패턴으로 분류하였다.

침실체재형은 거주자들의 생활행위 및 공간이용에 있어서 침실을 중심축으로 하며, 타 공간으로의 이동이나 다양한 생활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침실에 머무는 유형이다.

공용공간체재형은 거실, 부엌 및 식당, 응접실 등의 공용공간을 중심축으로 하여 공간이용과 생활행위가 이루어지며,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동료들과 함께 보내는 유

표 1. 고령자 그룹홈 조사대상 개요

시설	거주자	연령	성별	입주기간	건강상태*	ADL	IADL	
자립형	○그룹홈	B-1	72세	여자	1년 3개월	3	자립	자립
		B-2	80세	여자	4년	4	자립	자립
		B-3	78세	여자	1년	4	자립	자립
		B-4	80세	남자	3년	3	자립	자립
	ㄱ그룹홈	C-1	89세	남자	4년	5	자립	자립
		C-2	74세	여자	1개월	3	자립	자립
반의존형	ㄴ그룹홈	A-1	88세	여자	9개월	3	반의존	반의존
		A-2	83세	여자	1년 3개월	3	반의존	의존
		A-3	73세	여자	8개월	3	반의존	의존
		A-4	75세	여자	2개월	5	자립	반의존
		A-5	81세	여자	1개월	3	자립	반의존
		A-6	82세	여자	4개월	3	반의존	의존
		A-7	82세	여자	1개월	5	자립	반의존
의존형	ㄷ그룹홈	D-1	66세	남자	1년	3	자립	의존
		D-2	78세	남자	5개월	2	의존	의존
		D-3	79세	남자	4년 10개월	1	의존	의존
		D-4	88세	여자	7년	3	자립	반의존
		D-5	74세	여자	7개월	4	자립	반의존
		D-6	91세	여자	1년 6개월	4	반의존	의존
		D-7	89세	여자	3개월	2	의존	의존
		D-8	81세	여자	5개월	4	자립	반의존
		D-9	84세	여자	4개월	2	의존	의존
		D-10	84세	여자	7개월	2	자립	반의존

* 건강상태의 경우 자가 판정이며, 5점 만점의 평균값으로 제시하였음.

* ○, ㄱ, ㄴ그룹홈의 경우, 전체 거주자 중 병원, 친척집 등으로 옮겨간 거주자를 제외한 결과임.

형이다.

2거점체재형은 하나의 영역을 중심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별되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공간이용 및 생활 행위를 행하는 유형이다.

다거점체재형은 어느 한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생활환경내 여러 공간을 모두 사용하는 유형으로, 이는 치매고령자 그룹홈에서 보여지는 배회형(徘徊型)과는 달리 여러 공간을 사용함에 있어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행한다.

각 시설별로 공간이용패턴을 분류한 결과(표 2), ○그룹홈의 경우에는 공용공간체재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나타났는데, 이는 공간적 특성의 영향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거주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의한 차이로 생각된다. 방과 외부공간간의 2거점체재형을 보이는 거주자들은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고령자이었다. 침실체재형의 경우에는 성별 구성이 달라 동료들과의 접촉빈도가 낮음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생활공간 내 여러 공간을 사용하는 다거점체재형의 경우에는 활발하고 부지런한 성향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ㄱ그룹홈에서는 2거점체재형과 다거점체재형만이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자가 2명뿐이며, 거주자 수에 비하여 공간의 면적이 넓어 각각의 거주자가 매우 여유롭게 공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거점체재형은 공용공간과 외부공간을 거점으로 생활하였으며, 다거점체재형의 경우에는 침실과 공용공간, 외부공간 등 모든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ㄴ그룹홈에서는 4가지 공간이용패턴이 모두 나타났으며, 그 중 공용공간체재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거주자 개인적인 특성에 의한 차이도 있지만 공간구성 측면에서 거실과 부엌 및 식당이 통합형이며,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의 연결도 개방적인 공간구성이기 때문에 거주자들이 공간의 가장 중심축이 되는 공용공간에서의 체재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침실체재형이나 다거점체재형의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거나 내성적인 성격으로 혼자지내기를 좋아하는 거주자의 공간이용 유형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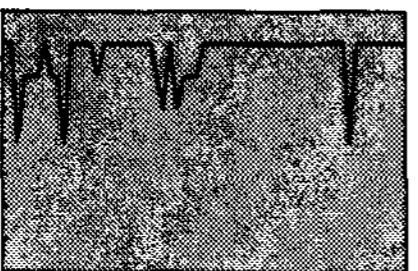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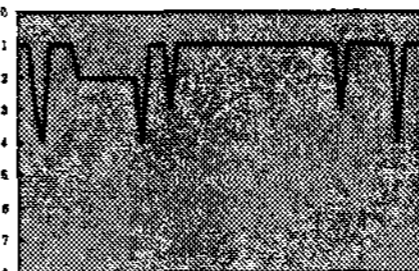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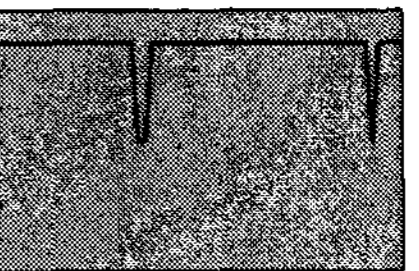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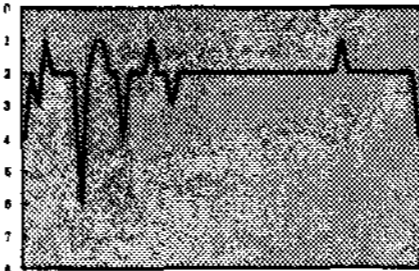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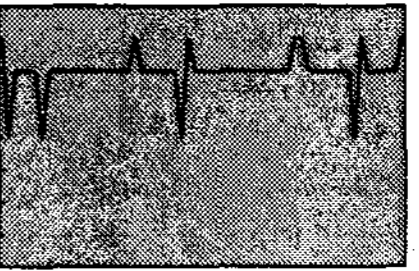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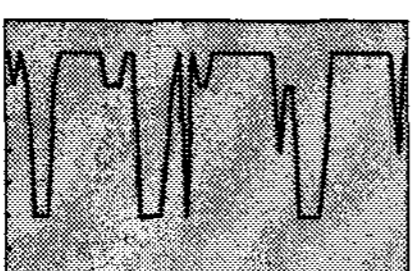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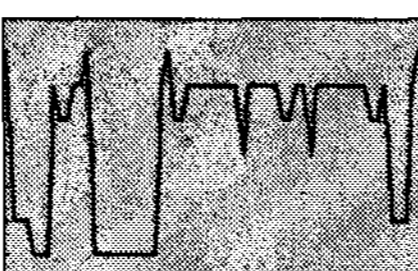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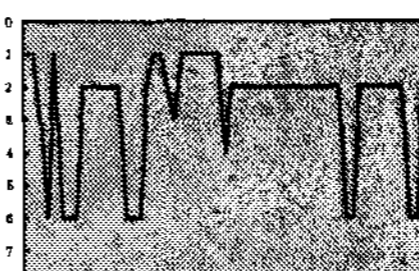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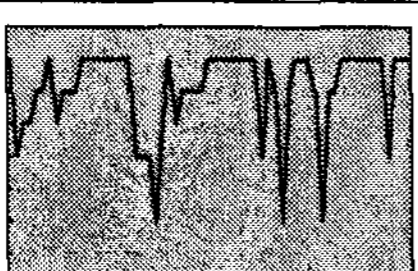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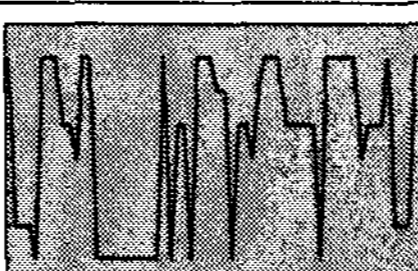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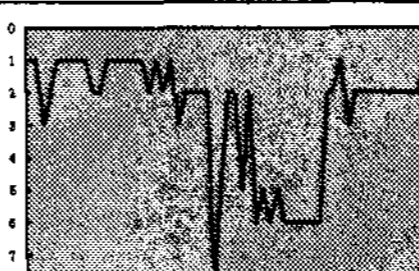
반면, ㄷ그룹홈에서는 침실체재형과 공용공간체재형으로 양분되어 나타났다. 이는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각각의 거주자들이 거점을 2개 이상의 영역으로 확장하지 못하고 자신이 주로 거주하는 공간에서 머무르며, 다른 그룹홈에 비하여 ADL 및 IADL이 의존형인 거주자가 많아 자기방에 머물거나 공용공간에만 머무는 단조로운 공간이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거주자의 ADL, IADL과 공간이용패턴간의 관계

그룹홈 거주 고령자들의 ADL과 IADL에 따른 공간이용패턴을 파악하고자 각 그룹홈별 거주자의 ADL과 IADL의 정도를 자립, 반의존, 의존으로 분류하여 공간이용패턴을 살펴보았다.

먼저 거주자의 ADL의 정도에 따른 공간이용패턴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자립형과 반의존형에서는 침실체재형, 공용공간체재형, 2거점체재형, 다거점체재형 등의 4가지 공간이용패턴이 모두 나타났다. 특히 자립형 거주자의 경우 공용공간체재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2거점체재형, 다거점체재형 등 여러 공간을 활동하는 경향을

표 2. 시설별 거주자의 공간이용패턴

	○그룹홈	ㄱ그룹홈	ㄴ그룹홈	ㄷ그룹홈
침실체재형	 1명		 1명	 6명
공용공간체재형			 4명	 4명
2거점체재형	 2명	 1명	 1명	
다거점체재형	 1명	 1명	 1명	

보이는 반면, 반의존형 거주자인 경우에는 침실체재형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의존형 거주자에게서는 침실체재형 공간이용패턴만이 나타나 공간사용에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공간이용패턴인 침실체재형과 공용공간체재형을 한 공간 사용유형으로, 2개 이상의 영역을 거점으로 생활하는 공간이용패턴인 2거점체재형과 다거점체재형을 다 공간 사용유형으로 분류하였을 때, 그룹홈의 거주자들은 한 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공간이용패턴이 많으나 자립 정도가 클수록 여러 공간을 사용하는 다 공간 사용 경향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주자의 IADL의 정도에 따른 공간이용패턴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자립형에서는 2거점체재형과 다거점체재형, 침실체재형으로 나타났으나 2거점체재형과 다거점체재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반의존형의 경우에는 침실체재형, 공용공간체재형이 나타났으나 공용공간체재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의존형에서는 4가지의 공간이용패턴이 모두 나타났으나 대부분 침실체재형으로 나타났다.

한 공간 사용과 다 공간 사용으로 분류한 결과, IADL이 자립형인 거주자들은 모두 다 공간 사용 공간이용패턴으로 나타났으며, 의존형이거나 반의존형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한 공간 사용 공간이용패턴으로 나타나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ADL과 같은 경향이나 ADL보다 더욱 뚜렷하게 IADL의 정도에 따른 공간이용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립형 거주자의 경우 이동성의 제약이 적음으로 인해 자발적인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반의존형 거주자의 경우 서로 협력해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용공간에서의 생활이 보여지며, 의존형 거주자의 경우 신체적 제한성으로 인해 주로 침실에 머무는 것으로 보인다.

3. 시설 특성과 공간이용패턴간의 관계

시설 특성별 공간이용패턴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 그룹홈을 운영 방침, 공간 관리, 공간 사용, 식사서비스 측면 등을 고려하여 자립 단계별로 나누어 자립형, 반의존형, 의존형으로 유형화한 결과(표 3), 0그룹홈과 1그룹홈은 자립형 그룹홈, 2그룹홈은 반의존형 그룹홈, 3그룹홈은 의존형 그룹홈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시설 특성별 공간이용패턴을 분석한 결과, 자립

형 그룹홈인 0그룹홈, 1그룹홈의 거주자들의 ADL은 모두 자립형이며, 이들은 2개 이상의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그룹홈, 1그룹홈 모두 거주자 수에 비해 주택의 규모가 커서 거주자들의 행동 영역이 넓어짐으로 인해 다양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방식 또한 자립생활을 지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룹홈 내 공간을 거주자들이 다양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의존형 그룹홈인 2그룹홈 거주자들의 ADL은 자립형과 반의존형으로 대별되는데, 자립형 거주자들은 모두 공용공간체재형으로 나타났으나 반의존형 거주자들은 4가지 공간이용패턴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반의존형 시설의 특성상 전반적인 생활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자립형인 거주자들은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반의존형 거주자들은 신체적 질환이나 ADL의 의존 정도로 인해 자립형 무리에 완전히 속하지 못하고 여러 유형의 공간이용패턴이 보여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의존형 그룹홈인 3그룹홈의 공간이용패턴은 자립형 거주자인 경우 공용공간체재형으로 나타났으며, 의존이나 반의존형인 경우에는 침실체재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3그룹홈은 거주자 수에 비하여 공간이 협소함으로 인하여 자립형 거주자라도 한 개의 영역만을 사용하는 소극적 공간 활용이 보여진다.

즉 자립형 그룹홈 거주자들은 2공간 이상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반의존형과 의존형 그룹홈에서는 거주자의 ADL 수행정도가 자립형이더라도 하나의 영역인 공용공간에서 주로 생활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본인이 가지는 능력은 동일하나 시설의 공간적 특성에 의한 영향으로 보여진다. 공간사용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개인실 사용의 경우 자립형 그룹홈에서는 혼자서 사용하나 반의존형과 의존형 그룹홈에서는 2인 이상이 함께 사용한다. 따라서 반의존형인 2그룹홈과 의존형인 3그룹홈에서는 개인실에서도 독립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개인실이 공용공간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공용공간을 개인실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 그룹홈 거주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공간이용행태와 생활행위를 분석하여 그룹홈 거주자의 공간이용패턴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자립단계에 따른 그룹홈 분류

	자립형 그룹홈	반의존형 그룹홈	의존형 그룹홈
운영방침	거주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	거주자들의 생활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	거주자의 생활에 적극적, 직접적인 관여
공간관리	거주자	운영자+거주자	운영자
공간사용	어려움 없음	부분적 어려움	전부 또는 부분적 어려움
개인실	1인 1실	2인 이상이 함께 사용	2인 이상이 함께 사용
식사서비스	공동식사(부분적 개별 취사) 타인의 도움 없이 수행	공동식사 일부 타인의 도움을 받음	공동식사 일부 또는 전부 타인의 도움을 받음
해당대상	0, 1그룹홈	2그룹홈	3그룹홈

1) 그룹홈 거주 고령자들은 침실체재형(寢室滯在型), 공용공간체재형(共用空間滯在型), 2거점체재형(二居点滯在型), 다거점체재형(多居点滯在型)으로 공간이용패턴이 분류되었다. 그 결과, ○그룹홈은 2거점체재형이 가장 많았으며, ㄱ그룹홈은 2거점체재형과 다거점체재형, ㄴ그룹홈은 공용공간체재형, ㄷ그룹홈은 침실체재형과 공용공간체재형으로 구분되었다.

2) 거주자들의 ADL과 IADL에 따른 공간이용패턴을 살펴본 결과, 공간이용패턴에 차이가 있었다. 즉 ADL이 자립형인 거주자는 공용공간체재형이 주류를 이룬 반면, 의존형 거주자는 침실체재형만이 나타났다. 그러나 IADL의 경우, 자립형 거주자는 2거점체재형과 다거점체재형, 반의존형 거주자는 공용공간체재형이 주류를 이루었고, 의존형 거주자는 침실체재형이 주류를 이루었다. 즉 ADL과 IADL의 자립 정도가 클수록 여러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고령자를 위한 공간계획에서는 고령자들의 ADL과 IADL의 수행정도를 고려하여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의 규모계획, 동선 및 배치계획, 설비계획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시설 특성별 거주자의 공간이용패턴을 분석한 결과, ADL의 수행정도가 동일수준인 자립형 거주자라 하더라도 시설 특성에 따라 다른 공간이용패턴을 나타내었다. 즉 자립형 그룹홈의 거주자들은 2개 이상의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의존형 그룹홈과 의존형 그룹홈의 거주자들은 공용공간체재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본인이 가지는 능력은 동일하나 시설의 공간적 특성에 의한 영향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그룹홈 거주 고령자들의 신체적인 조건, 대인관계 등의 개인적인 특성과 공간의 크기, 구성, 배치 등의 공간적 특성, 생활방식 등에 따라 공간이용행태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 그룹홈에서 거주자들의 생활행위와 생활공간의 대응적 측면에서 나타난 거주자들의 공간이용패턴이 고령자 그룹홈 계획시 반영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고승덕(1996).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추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경숙(2003).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서울: 의암출판문화사, p. 193.
- 성명옥(1999). 노인의 집 거주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가을호, 한국노인복지학회, pp. 53-54.
- 이영수·원장원(2002). 한국형 ADL, IADL의 적용. 대한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연수강좌 프로그램, 가정의학회지, 23(4), pp. 188-197.
- 이인학·문성기·김근조·박재영(2002). 도시지역 노인들의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물리치료학회지, 14(3), pp. 217-229.
- 정경희·조애저·오영희·변재관·변용찬·문현상(1998).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田中紀之·神吉優美·三浦 研·高田光雄(2005). 施設の居住環境が高 ADL 高齢者の生活行爲に及ぼす影響 -居住者の自己記録および歩數・運動量記録計データに基づく生活時間の分析-. 日本建築學會論文集, 592, pp. 49-55.